



정부, 2013년 예산(안) 발표

최 원 선임연구원

■ 정부는 재정여력 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함.

- 총수입은 2012년 대비 8.6% 증가한 373조 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총지출은 2011~2015년 계획상의 증가율보다 0.2%p 확대된 5.3%, 342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함.
-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관리(GDP대비 $\Delta 0.3\%$)하고,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2012년 전망치 34%에서 2013년 33.2%로 0.8% 축소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할 계획임.

〈표 1〉 2013년 재정총량(안)

구분	(단위: 조 원, %)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증가율
총수입	343.5	373.1	8.6
총지출	325.4	342.5	5.3
관리재정수지 ¹⁾ (GDP대비)	$\Delta 14.3$ ($\Delta 1.1$)	$\Delta 4.8$ ($\Delta 0.3$)	
국가채무 (GDP대비)	445.9 [445.2] (33.3) [(34.0)]	464.8 (33.2)	

주: 1)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함.

2) []은 2012년 전망치.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

■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튼튼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균사를 뺀 ‘알뜰 예산’으로 설정함.

-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실물경기 회복 지원, 무역금융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 증진 등 경제활력 제고 투자를 확대함.

- 일을 통한 소득과 복지 증진,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함.
- R&D,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전통적·취약부분 산업에 대한 체질강화를 달성함.
-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6조 7,000억 원의 용자지출을 이차보전 방식¹⁾으로 지원하고, 3대 유형 및 8대 영역 구조조정으로 3조 7,000억 원 수준을 절감함.

〈표 2〉 2012년과 201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구분	(조 원, %)		
	2012년	2013년(안)	증가율
총지출	325.4	342.5	5.3
1. 보건·복지·노동 (주택부문 제외 시)	92.6 73.6	97.1 79.6	4.8 8.1
2. 교육 (교육교부금 제외 시)	45.5 7.0	49.1 8.1	7.9 14.3
3. 문화·체육·관광	4.6	4.8	4.9
4. 환경	6.0	6.3	5.8
5. R&D	16.0	16.9	5.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4.1
7. SOC	23.1	23.9	3.6
8. 농림·수산·식품 (4대강 제외 시)	18.1 16.7	18.3 18.1	1.2 8.2
9. 국방	33.0	34.6	5.1
10. 외교·통일	3.9	4.1	5.0
11. 공공질서·안전	14.5	15.0	3.2
12. 일반공공행정 (교부세 제외 시)	55.1 22.1	57.3 21.8	4.0 (△1.4)
※ 지방재정지원	-	1.3	순증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

(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기재부, 9/25)

1) 재정용자를 시중은행 용자로 전환하여 수혜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정은 이차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재정 지출액을 2.0%p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